노후 산업단지, 폐기물 없는 생태산단 변신 중

에너지·자원 재활용 통해 환경·경제 상생
여수·광양산단 등 새로운 도약 발판 기대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광주, 전남·북 지역 노후 산업단지들이 '생태산업단지'(EIP=Eco Industrial Park)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는 단지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열, 폐수를 자원화하고 이를 필요한 기업들에 공급함으로써 '오염물 무배출 자원순환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로 나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올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진행되는 3단계 사업에는 국비 630억원, 지방비 180억원 등 8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광역사업단 산하에 각 지역별로 호남권EIP사업단(이하 호남권사업단) 등 12개 사업단이 구성됐다.

호남권사업단 산하 전남사업단은 1단계(2005~2009년), 전북사업단은 2단계(2010~2014년), 광주사업단은 3단계에 각각 참여했다.

호남권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공정 사업을 포함해 106건의 과제를 발굴, 83건의 네트워크 과제에 지원하고 47건의 사업화에 성공했다.

사업화 기업에서는 1128억3000만원을 신규 투자해 22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로 인해 연간 1319억1000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54만8000t의 부산물 및 55만8000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했다. 앞으로 수요처 확대, 아직 사업화되지 못한 종료 과제가 사업화될 경우 이들 효과는 더 늘어날 것으로 호남권사업단은 전망하고 있다.

◇여수·광양국가산단 생태산업단지 본격화=호남권사업단내 전남EIP 사업단은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인 광양만권내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에서 무기부산물의 자원화 및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양산단에서 발생하는 철강공정 부산물인 슬래그와 석유화학산업을 위한 발전소(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 및 석탄재를 활용한 무기골재화 및 시멘트 대체용 고화재 생산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자본금 600만원으로 창업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연매출 50억원 업체로 성장했으며, 건설신기술인증, 관련특허 15건, 녹색기술인증 2건 및 환경표시 인증획득으로 고화제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용역과제를 통해 시작한 '광양~여수간 부생가스 교환망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유가 하락 및 경제성장의 둔화 등 산업전반의 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업사례다. 광양제철에서 발생하는 수소, 일산화탄소, 질소 등 부생가스를 여수산단의 석유화학기업에 공급하고, 석유화학 제품 및 원료를 광양제철에 공급하면서 원가 절감 및 원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민간 투자 2500억원을 집중해 광양과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을 구축하고 있다.

또 여수산단내 육상배관망 구축사업을 사업단이 주관, 해저터널 사업과 연계해 여수산단내 안전과 공공성을 갖춘 지상 10㎞(사업비 300억원)에 달하는 지중화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학·연·관 사업 추진으로 활성화 효과=호남권사업단은 여수산단의 기업 및 관련학과 교수들의 지원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지난 2003년부터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계획에 참여해 이를 추진중이다.

2005년 10월 여수사업단이 문을 열었으며, 2010년 5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2009년 10월에는 2단계 생태산업단지 추가지정에 따라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광양·대불·오천일반 산업단지, 화양 농공단지가 추가 지정됐다.

2010년에는 전북사업단이 개소했으며, 3단계 사업 시작과 함께 이달 광주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호남권사업단은 산하에 전남(여수), 광주, 전북(군산)사업단 등 3개 지역사업단을 이끌게 됐다. 이들 사업단을 중심으로 여수국가, 군산국가, 광주첨단과학국가단지를 허브 단지로 해 25개 산단을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호남권사업단은 향후 3단계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원 순환네트워크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과정에서 고용 창출 250명과 신규투자 1500억원을 통해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매출 1500억원, 폐기물 처리 비용절감 500억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폐기물 58만t 및 온실가스 6만t 저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사업단 관계자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기업이 다양한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산·학·연·관 공동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 가지 테마를 잡을 수 있는 호남지역 산업단지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지원금 669억원이 투자돼 521개 과제를 발굴, 337개 과제 지원과 262개 과제를 완료했다. 사업화 누적 성과로 사업화를 통한 1조331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470만3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메르스 청정지역 여수 놀러 오세요"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할인 혜택 등 적극 홍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던 여수지역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2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20일 첫 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생긴 지 40일이 지났지만, 여수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와 격리자가 단 1명도 없다"며 "그동안 과도한 공포와 괴담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불안감으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서비스 업계 전반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여수 관광업체들은 현재 적외선 체온기 설치와 정밀 방역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모두 끝낸 상태여서 안심하고 메르스 청정지역인 여수로 여름휴가를 오시길 바란다"며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이자 365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는 치유의 도시 여수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위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진(전남관광㈜ 대표이사) 여수관광발전협의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여수 숙박업계는 예약률이 40~60% 줄고 선박업체 손님이 70~80% 줄어드는 등 지역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업체별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할인혜택을 마련하는 등 휴가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도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관광분위기를 회복하고 1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나섰다.

우선 시는 오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지털프라자에서 열리는 '2015년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에 참여해 관광여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오는 7월 10일부터 도심순환 천장 개방형 2층 관광버스를 본격 운행해 새로운 관광 명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4일부터 여수밤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 유람선 매일 운항, 매주 금·토·일요일 해양공원 등 8곳에서 '여수밤바다 버스커 거리문화공연', 오는 8월 여수 국제범선축제와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노철 여수시 관광문화교육 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시와 협회가 함께 모여 월 2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고 여수밤바다를 상표 등록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모든 홍보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거북선축제 활성화 방안 보고·토론회 열려

올해 열린 49회 여수 거북선축제 모습.

여수시는 29일 여수 문예회관에서 여수 거북선축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축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거북선축제 지난 50년, 새로 맞이할 50년'이라는 주제에 맞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정희선 청암대 교수와 패널토론자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최동희 광주대 교수, 김유화 여수시의회 의원, 서석주 전 거북선축제 추진위원장, 김병호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올해로 49회째를 맞은 여수 거북선축제는 지역대표 축제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활성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에 열리는 제 50회 축제가 지역행사를 넘어 국내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보고회와 토론회는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발전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